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0.25%p 인상
-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기술 전쟁

## 경영 노트

- 공동 임원제 (Two in a Box)

## 사회 트렌드

- T커머스 (Television Commerce)
- 셀리켓 (Celliquette)

## 저널 브리프

- 달러화 강세 지속되나

## 洗心錄

- 사람보는 법

□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0.25%p 인상**

- **12월 13일, 미 FOMC가 연준 금리를 4.0%에서 4.25%로 인상**
  - 2005년 12월 13일 미국 연준은 2004년 6월 30일 이후 13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연방 기준 금리는 4.25%로 상승했음
  - 다만, 성명서에는 그 동안 사용해 오던 "경기 부양적(accommodative) 통화 정책이 점진적인(measured) 속도로 제거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조만간 금리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김
- **1월 말 0.25%p 추가 인상은 확실, 버냉키 취임 이후는 아직 불확실**
  - 신중한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measured"라는 표현이 유지됨으로써 버냉키 취임(2006년 2월) 이전에 금리가 한번 더 인상될 것이 확실함
  - 또한, 미국 경제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버냉키 취임 이후에도 추가 인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美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국내 콜금리 인상 압력도 높아지고 증시 상승세도 한풀 꺾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 대책이 필요

□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기술 전쟁**

-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에 선진국과의 특허기술 분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한국 기업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
  - 한국 기업들은 기초 소재 및 핵심 부품산업의 기술력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해 만성적인 기술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4년 27.3억 달러였으며 2005년 1~8월 에도 21.0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음
- **이에 더해 최근 들어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상승하면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음**
  - 미국 기업들이 법률분쟁을 제기하여 소송 또는 합의를 통해 받아내는 배상 금액 상위 10위 기업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한국 기업임
  - 전자산업계 특허소송의 경우 1986~2000년 34건에 머물렀지만 2000년 이후 2005년 10월 현재 61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음
  - 기업들은 하루 빨리 지적재산권 전문 부서를 마련하고 정부 또한 우리나라의 고유 기술을 지킬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함

□ 공동 임원제 (Two in a Box)

- (개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업경영과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미국 기업들이 ‘한 지붕 두 가장’과 같은 공동 임원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함
  - 공동 임원제란 기업 내 한 직위에 2명의 임원을 임명하는 것을 말함
  - 인텔, 시스코 시스템스, 골드만삭스 등 많은 미국 기업들은 80년대부터 CEO, 부사장, 이사를 포함한 전 직위에서 도입하고 있는 상황임
  
- (장점) 공동 임원제는 임원 간 지식 교류, 빈번한 출장, CEO직 승계나 기업 간의 문화 결합 차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지식 교류) 경험이 많은 임원과 경험은 적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임원이 공동 임원직을 수행할 경우, 서로 지식교류를 할 수 있음
  - (빈번한 출장) 특정 임원이 빈번한 출장으로 인해 자리가 공석일 경우, 한명은 회사에 남아 업무를 챙길 수 있어 업무의 공백을 막을 수 있음
  - (CEO 승계) 인텔의 전 회장인 앤디 그로브는 80년대 중반 후임자로 그 레이그 배럿(현 회장)을 점찍어 두고 1년간 공동 CEO직을 수행함
  - (문화 결합) 90년대 다임러와 크라이슬러는 합병 후, 공동 임원제를 활용하여 이질적인 조직 간에 활발한 업무 교류를 유도하였음
  
- (단점) 공동 임원제는 한 자리에 두 명의 리더가 있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의 줄서기나 업무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줄서기) 일부 기업에서는 두 명의 임원을 놓고 직원들이 ‘줄서기’를 하는 부작용도 있음
  - (우선 순위 결정) 두 임원이 동시에 상이한 업무지시를 하달할 경우, 부하직원들이 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어려움
  
- (도입시 고려 사항) 공동 임원제는 독립채산제 형식의 조직 보다는 업무영역이나 지식이 전문화된 매트릭스 조직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첨단기술이나 컨설팅 기업들처럼 세분화된 전문성 기반 하에 프로젝트 사업을 전개하는 조직에서, 임원 간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 T커머스 (T Commerce, Television Commerce)

- 텔레비전(Television)과 커머스(Commerce)를 합친 단어로, 인터넷TV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말함
  - 지난 13일 CJ홈쇼핑이 'CJT폴'을 시작하면서 T커머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림
  - GS홈쇼핑도 이달 중 'GST숍'을 열 예정이고, 현대홈쇼핑은 내년 1월, 우리홈쇼핑은 내년 1~3월에 T커머스를 상용화할 예정임
  - 인터넷을 통한 E커머스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M커머스의 장점에 텔레비전을 결합한 것으로, 199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1999년부터 여러 나라에서 활성화됨
- T커머스는 시청자가 원하는 물건을 TV와 리모컨을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 또는 시청하고 있는 물건을 TV 상에서 리모콘만으로 구매 주문할 수 있는 양방향(two-way) 쇼핑 형태임
  - T커머스는 사용이 편리하고, 인터넷은 물론 홈쇼핑과 홈뱅킹·증권투자 등의 금융 업무, 원격진료·교육·오락 등도 즐길 수 있어, 향후 유비쿼터스 사회의 주요한 수단이 될 것임

□ 셀리켓 (Celliquette, 휴대전화 에티켓)

- 셀룰라폰(Cellular phone)과 에티켓(Etiquette)이 합쳐진 단어로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뜻함
  - 예컨대 어떤 음식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하고, 일부 공공 장소에서는 휴대전화 통화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어 놓음
  - 이런 규칙은 호출기나 다른 개인 정보통신기기에도 확장 적용함. 가령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만큼 무례한 행동은 없음
  - 앞으로는 “올바른 셀리켓을 지켜 주세요”라는 표지를 곳곳에서 보게 될 것임
- 우리 사회에게도 셀리켓 제정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우리 나라의 경우, 지하철, 엘리베이터, 극장 등에서의 휴대전화 예절은 물론 인터넷 상에서의 예절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달러화 강세 지속되나?\*

- (빛나간 예상) 엄청난 쌍둥이(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약 달러를 유도하여 적자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으나,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원인) 미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 오일머니의 유입 등이 달러화 강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EU나 일본 등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미국의 금리 수준 또한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함
    - 對美 FDI 증가: 2005년 對美 FDI는 2004년 FDI 규모인 959억 달러를 훨씬 초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對中 FDI가 2004년 606억 달러에서 2005년 550억 달러로 감소할 전망으로, 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신뢰 표시임
    - 오일머니 유입: OPEC 회원국들의 은행예금 가운데 달러화 비율은 지난 2004년 3분기 사상 최저 수준인 61.5%로 떨어진 이후 2005년 중순까지 69.5%로 급증함. 반면, 같은 기간 유로화 예금은 사상 최고치인 24%에서 16%까지 하락함
    - 달러화 강세: 결국 2005년 달러화의 가치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13%, 엔화에 대해서는 무려 18%나 인상됨
  
- (문제점) 미국 이외의 중앙은행들도 금리인상을 시작함에 따라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내년에도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달러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의 딜레마)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는 외채 증가와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을 외면하는 시기가 도달하면 달러가 급락할 것임
  
- (시사점) 환율의 향방을 짐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강세를 보여 온 미국 달러의 급락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 글은 『한경비즈니스』(2005.12.19)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 사람 보는 법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의 원천인 사람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지만, 옛 성현들도 사람 쓰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 자신은 물론 조직의 성공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 보는 법이 무엇보다 중요시됐다. 공자(孔子, BC 552~479)는 이렇게 말했다.

무릇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 하고, 알기는 하늘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하늘에는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과 아침,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외모는 진실한 듯하면서도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고, 겉은 어른다운 듯하면서도 속은 못된 사람이 있으며, 겉은 원만한 듯하면서도 속은 강직한 사람이 있고, 겉은 건실한 듯하면서도 속은 나태한 사람이 있으며, 겉은 너그러운 듯하면서도 속은 조급한 사람이 있다.

또한 의(義)로 나아가기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하는 사람은 의를 버리기도 뜨거운 불을 피하듯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람을 쓸 때에 다음 아홉 가지 결과를 종합해서 사람을 알아보아야 한다.

1.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그 충성을 보고,
2. 가까이 두고 써서 그 공경을 보며,
3. 번거로운 일을 시켜 그 재능을 보고,
4. 뜻밖의 질문을 던져 그 지혜를 보며,
5. 급한 약속을 하여 그 신용을 보고,
6. 재물을 맡겨 그 어짙을 보며,
7. 위급한 일을 알리어 그 절개를 보고,
8.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며,
9. 남녀를 섞여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본다.

**“사람됨이란 한 사람에게서 직위, 훈장, 호칭을 빼고 남은 것이다.”**

- 볼프강 헤르프스트(1925- ) : 독일의 작가